

# 2017년도 제7차 회의록(요약)

2017.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1. 회의명

-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 12. 1.(금) 08:00~9:30
- 장 소 : 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4층)

##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1인

- |              |         |
|--------------|---------|
| ○ 보건복지부      | 박능후 위원장 |
| ○ 국민연금공단     | 김성주 위원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류기정 위원  |
| ○ 중소기업중앙회    | 김제락 위원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정광호 위원  |
|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이인상 위원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수현 위원  |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김병욱 위원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윤경식 위원  |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문미란 위원  |
| ○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성봉 위원  |



## 7. 토론요지

- (류기정 위원) 위원들의 윤리강령과 비슷할 수 있는데 회의 진행내용 관련해서 언론에 언급 등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지
- (장재혁 간사) 윤리강령에 기밀정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회의내용 중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기밀정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안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외부의 취재진들한테 언급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함.
- (류기정 위원) 예를 들어 기자들은 회의에서 언급했던 내용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할 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 (장재혁 간사)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내부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함.

### □ 보고 제17-23호 :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 설치 방향(안)』

- (윤경식 위원)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기능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왜냐하면 약간의 중복성, 향후에 스투어드십 코드, 책임투자도 되면 서로 연관관계가 있음. 그래서 나중에 각자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상충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장재혁 간사) 그런 중복되지 않도록, 안건이 다루어지다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충분히 구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윤경식 위원) 그런 경우가 되면, 각 위원회가 평가한 내용을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같이 볼 수 있게 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봄.
- (정광호 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책임투자 초기단계의 정착을 위해서 특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통합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특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
- (류기정 위원) 책임투자의 필요성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자체의 독립성이라든가 보장이 잘 된 상태에서 사회책임투자가 되면 좋은데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음. 책임투자라는 것은 장기수익을 위해서 고려한 요소 중 하나인데 큰 틀에서 보면 수익성, 안정성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 다만, 사회책임투자위원회가 투자정책전문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상위기구로 될 수 있어 이것이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는 기금운용을 보좌하는 기구로 이 역할을 한다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자산배분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내용하고 사회책임투자에서 기업에 대한 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음. 이것이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적이고 보완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 (문미란 위원) 국민연금법에 이미 관련규정이 있었는데 사회책임투자 관련해서 스크리닝 안 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 이 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형태의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음. 업무만 가중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조금 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책임투자가 강조되면서 수익률의 저하 때문에 노후보장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어떻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지속가능성, 장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지를 잘 고민해서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음.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의 가상펀드 운용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반갑게 들렸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이윤이 더 커지는 운영이 되도록 책임투자를 얘기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되고 평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봉 위원) 의사결정을 여기서 바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상충되면 그것을 누가 해결할 것인지, 의결권전문위원회라든지 다른 전문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구조를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음. 두 번째 전체 모든 투자대상에 대한 것인지 책임투자 위탁펀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22페이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명백하게'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가습기 문제 같은 경우 그게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인지, 다 밝혀진 시점인지, 회사가 다 망해서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시점일 수도 있고, 과연 이 '명백하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못하다보면 단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이 과연 명백한 기준이었는지 3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재혁 간사)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안건 올리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하겠음. 두 번째 투자대상은, 국내주식이 주가 되고, 해외에서는 사모펀드까지 많이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 부분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충분히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음. 세 번째, '명백하게' 라는 의미 자체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사실 정할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임. 명백하게 문제가 된다, 안된다 판단을 기금운용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임.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이런 판단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기 해서 그 논의 구조는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다루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기금본부에 시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임.
- (문미란 위원) 옥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든지 물의를 일으키는 회사들은 국내 회사만은 아니고, 다국적 기업

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꼭 국내주식, 국내기업 대상,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음. 오히려 시장 경계는 점점 더 급속도로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고려했음 좋겠음.

- (이인상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개인적으로 책임투자에 대한 전문위원회가 늦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재원을 가지고 운용이 되는데 무조건 수익률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듦.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듦. 투자정책자문위원회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운용을 하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듦. 그리고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이 문제성이 많이 있을 것임.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대상들을 선정할 때 기준을 키우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림.

**□ 보고 제17-24호 : 『국민연금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관련 중간 보고』**

- (윤경식 위원) 국민연금에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의사결정기구하고 투자정책결정위원회가 있음.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도 나오고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수탁책임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연구용역보고서

도 그렇고 현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짐. 뭔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하는데 지금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또 많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뭔가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좋겠음.

- (장재혁 간사) 연구보고서의 수탁자위원회는 사회책임투자위원회와 기존에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합친 것임. 저희 생각은 사회책임투자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대로 운영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연구보고서와 차이가 있는 것임. 일단 2개를 해 보고 연구보고서 내용은 합쳐서 바로 수탁자위원회로 하는 그 차이가 있음.
- (박경서 고려대 교수) 용역 담당하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사회책임 관련 부분만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책임위원회를 제안 한 것 같고, 저희는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의결권 행사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주주로서의 선관의무임. 그래서 주주권행사 전반을 포함한 기능이 필요하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 기능이 사회책임활동 ESG 활동하고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둘을 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입장임.
- (문미란 위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2개를 합해서 하나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책임투자 위원회를 먼저 시작하다가 하나로 합치는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신 것 같음. 연구결과를 들

으면서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게 됨. 기업 현장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현실하고 동떨어지다는 생각일지 모르지  
만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 아닌가 싶  
고,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지  
속가능성, 장기적 안정성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이 기금  
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투자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므로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책임투자위원회  
만 가지고는 지배구조 'G'를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  
는 것은 의결권행사라든지 그런 것임. 그래서 같이 가야지만 종국적  
으로 책임투자에 관한 목적도 달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이수현 위원) 책임투자, 스튜어드십 거기에 보면 사회현상을 봤을  
때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수탁책임위원회가 됐든 사회책임위원  
회가 됐든 의사결정 또는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도 줄 수도  
있고 또 비공개에 대한 비밀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의  
원활성이 있어야 됨. 정보접근의 원활성이 없이 타의의 정보만 가  
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기업의 지속가능한 영향에 미칠 수  
있음. 정보접근을 사전에 할 것인지 사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가 중요함. 세 번째 수탁자의 책임 컴플라이언스를 어디까지 허용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  
음. 그래서 애매하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책임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무적인 생태환경을 봤을 때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논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

- (박능후 위원장) 지금 중간보고를 듣고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연구보고서의 중간내용임.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참고해서 연구를 더 진척을 할 수 있겠음. 이것이 정부(안)이라거나 또 정부가 꼭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연구보고서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 혹시 외부의 언론과 접촉할 때 정부의 연구보고서 내용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정부가 이렇게 간다더라.' 이렇게 하면 또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연구보고서가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연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두 번째 강조 드리는 것은, 하나의 전문위원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의사결정 독립성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난 다음 의미 있는 논의가 아닌가 하는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거버넌스에 대해 전폭적인 개편을 구상하고 있음. 그래서 오늘 제시된 것은 없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안)들이 골고루 잘 반영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갖춰지고 난 뒤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갖춰가도록 하겠음.
- (류기정 위원)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좋겠음. 기정사실화 했을 경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진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조심하겠음. 이것은 그냥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이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혹시 언론에서 취재를 했을 경우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고 다만, 세부적인 것,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제도들이 마련돼야 하겠다는 생각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제도들을 같이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 (박능후 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적 책임투자가 본격 논의되면 사회 반응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함. 우선 기업에서는 정부가 정치권하고 같이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일 먼저 할 것 같고, 과거에 이런 것 없을 때도 정부가 경영간섭을 많이 해 왔고 부당한 침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됨. 그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덕성 접근 참 좋은데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걱정을 할 것임. 그래서 연구보고서에도 일부 지적되었으나,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익성도 보장된다는 역사적인 경험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으니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도를 만들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도 들어드려야 됨. 결국은 단계적인 접근,

아주 조심스런 투자의 확대 순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음. 내부적으로 볼 때는 관리운영체계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같이 삼자가 쥘여있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절대 서두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의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서 천천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장재혁 간사) 참고말씀 드리면, 오늘 논의결과와 안건에 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함.
- (김병욱 위원) 다음 회의 때 대우조선해양 관련 손배소 경과사항에 대해 부탁드리겠음.
- (박능후 위원장) 두 번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고, 제7차 실무평가 위원회를 마치겠음.